

조선후기 향촌사족 詩歌의 自意識과 그 윤리적 성격*

- 『魏門歌帖』을 중심으로

국윤주**

<차 례>

1. 서론
2. 『위문가첩』의 작품 구성과 수용적 기반
3. 자의식의 표출 양상
4. 『위문가첩』 수용의 윤리적 성격
5. 결론

<국문초록>

조선후기 향촌사족의 거향윤리 변화 요인을 사회경제적 처지와 신분위상의 변화로 파악하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향촌사족 詩歌에 나타난 自意識과 그것의 윤리적·사회적 감정으로서의 역할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호남의 장흥지역 위씨 문중에서 세전되어 온 『魏門歌帖』 향유의 사회적 관계와 배경 등을 살펴보면 수치심과 같은 윤리적 감정의 표출과 공감의 확산이 거향윤리의 변화에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족으로서 신분적 자의식의 표출과 공감은 당대 향촌 사회의 문인들에게 폭넓게 공유되는 감정이었다. 가계를 운영해가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이에 따른 좌절,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또한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공감되는 윤리적 성격의 감정이었다.

신분직임에 대한 회의와 좌절감, 가장으로서 죄책감 등의 윤리적 감정은 『위문가첩』의 제작과 전승, 수용의 전 과정에서 향촌사족 문인들 일반에 지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61-A00006)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HK연구원

배적 감정으로 내면화되었을 것이다. 한편 윤리적 감정에 대한 방어기제로 새로운 생활규범과 윤리의식을 담은 사회적 실천행위가 추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강회라는 문중조직을 만들고 규약에 담은 생각은 『위문가첩』의 시와 노래가 지원함으로써 조선후기 향촌사족들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그들만의 독자적인 집합 감정이 형성되었다.

핵심어 : 향촌사족, 魏門歌帖, 自意識, 윤리적 감정, 居鄉倫理, 집합 감정

1. 서론

이 글은 18~9세기 향촌사족의 시가에 표출된 자의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자의식이 향촌사족이라는 계층적 집단의 집합감정으로 형성되고 구조화되는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집합감정(collective consciousness)은 사회나 집단 조직 내에서 전체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일련의 사고방식, 규범, 가치관, 감정 체계를 일컫는데¹⁾ 개인의 활동과 구분되는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魏門歌帖』은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위세보(1669~1707)의 종손가에 전해져 온 것으로 1966년 이종출²⁾에 의해 『三足堂歌帖』으로 발굴 소개되었으나, 이 가첩에 실린 대부분의 작품이 위세보 사후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엽에 지어진 것이고, 장흥 위씨 문중에 세전 되어 온 것이라 하여 김석회³⁾가 다시 『위문가첩』으로 명명하였다. 『위문가첩』은 8편의 가사와 1편의 연시조가 실려 있는데, 작품의 창

1) 잭 바바렛, 박형신 옮김, 『감정과 사회학』, 이학사, 2009, 14~16쪽 참조.

2) 이종출, 「지지재 이상계의 가사고」, 『국어국문학』 제33호, 국어국문학회, 1966.

3) 김석회, 「『위문가첩』을 통해 본 조선후기 호남지방 향촌사족층 문학의 사회적 성격」,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 이회문화사, 1995, 311쪽.

작과 수용의 측면에서 대부분 장흥지방 향촌사족층이라는 계층적 단일성이 뚜렷하여 그들의 자의식과 감성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문가첩』에 대한 연구는 이종출⁴⁾에 의해 발굴 소개된 이후로 개별 작품에 대한 논문은 꾸준히 제출되었다. 그 가운데 위백규 문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며 제출한 김석회⁵⁾에 이르러 가첩 전체를 논하는 논문이 마련되었다. 『위문가첩』에 나타난 주제적 관심을 유람취향, 고사회고 취향, 가부장제 윤리의 재정립, 직역에 대한 고민과 모색, 현실모순의 인식과 벌열 비판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주제적 관심이 호남지방 향촌 사족들의 사회경제적 처지의 변화에 따른 사회사적인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박수진⁶⁾은 장흥지역의 가사문학 전체를 다루면서 그 주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지리적인 표상과 담론 등을 파악하는 논문으로, 가사 텍스트를 기본 자료로 하여 주체, 대상, 행위들과 공간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드러내는지 문화지리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최근 김신중⁷⁾은 장흥가사의 범위와 대상을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동향과 성과를 개별적 접근과 지역적 접근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장흥가사의 특성이 기행가사, 교훈가사, 현실비판가사가 주류를 이루고 유람과 교화 및 비판 행위를 통해 작품이 성립되는데 유락과 인애, 분노와 같은 정서가 이를 촉발시키거나 환기시킨다고 보았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작품 속에 표출된 향촌사족층의 자의식을 파악하는데서 더 나아가 이러한 윤리적 감정이 추동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향촌사족의 사회경제적 기반의

4) 이종출, 「지지재 이상계의 가사고」, 『국어국문학』 제33호, 국어국문학회, 1966.

5) 김석회, 「『위문가첩』을 통해 본 조선후기 호남지방 향촌사족층 문학의 사회적 성격」,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 이회문화사, 1995.

6) 박수진, 「장흥지역 가사문학의 문화지리학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7) 김신중, 「장흥가사의 특성과 의의」, 『고시가연구』 제2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균열과 신분위상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18세기 이후로 새로운 윤리의식의 재정비와 생활규범의 정비를 추동하는 요인으로써 이들의 자의식, 즉 윤리적 성격의 감정이 주된 동인으로 작동하였다고 보고, 이러한 감정이 종족 집단과 향촌 사회 내부에서 공감과 확산을 일으켜 집합감정으로 형성되는 데에 『위문가첩』과 그 작품들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감정은 생리학적, 유기적 현상으로서의 감정과 인간이 능동적으로 상황을 정의하는 숙고하는 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감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죄책감, 수치심, 자부심, 동정심과 같은 감정들은 인간의 인지과정을 요하는 감정으로 규범이나 문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사회적으로 구성되는데 타자나 공동체의 태도를 자신에게 통합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윤리적 감정으로 사회적 상황과 관계에서 규범적·도덕적 행동의 중요한 동기요인이 된다.⁸⁾ 이에 대한 해명은 당대 사람들의 생활감정과 당대인이 향유했던 문학을 이해하고 재현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리라 본다.

2. 『위문가첩』의 작품 구성과 수용적 기반

조선후기 문학 연구에서 사대부계층의 분화와 문학담당층의 확대에 따른 문학적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내기 위한 연구 흐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최근 지역문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각 지역의 특성과 함께 개별적 문학 작품과 작가에 대한 연구도 상당부분 축적되어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이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료 『위문가첩』

8) 전신현·이성식, 「규범행위에 있어서 죄책감과 수치심의 역할」, 『사회와 문화』제9집, 고려대사회학연구회, 1995, 175~176쪽.

은 생산-수용범위가 비교적 자명하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작가의 개인 작품집은 아니지만 대체로 작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작품들을 편집 구성하여 향유하고 유통해온 과정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어서 문학담당층의 생생한 실상과 함께 이러한 문학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위문가첩』에는 <금당별곡>을 비롯한 8편의 가사와 위백규의 연시조 <농가>가 필사되어 실려 있는데, 장흥지방의 위씨 문중에서 전해져 오다가 1974년 장흥 방촌의 위백규 생가에 있는 필사본 문서들과 함께 경인 문화사에서 『存齋全書』로 영인 간행되어 전한다.

『위문가첩』에 실린 작품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명	작자	제작연대	길이	유형
금당별곡	위세직(1655~1721)	1707년 이전	200구	기행가사
즈회가	위백규(1727~1798)	1787년	288구	교훈가사
농가	위백규	1767년경	연시조 9장	전원시조
초당곡	이상계(1758~1822)	1808년경	137구	은일가사
인일가	이상계	19세 초반	197구	교훈가사
만고가	박이화(1739~1783)	18세기 후반	256구	사적가사
천풍가	노명선(1647~1715)	18세기 후반	332구	기행가사
합강정선뉴가	미상	18세기 후반	160구	현실비판가사
권학가	미상	미상	68구	교훈가사

가첩에 수록된 작품들은 주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장흥, 영암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배경 위에서 생산되고 수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은 다른 문서나 문집에서도 발견되어, 이들 개별 작품에 대한 소개와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는데, 국문이 중심이 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저본들을 참고하여 주로 음영가창을 토대로 필사하고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필사한 필체가 여럿인 점 등으로 미루어 한 개인의 독자적인 편집이 아닌 집단적 구성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위백규의 연시조 <농가>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 작품은 『존재전서』에 함께 영인되기 전에 각기 전승되어온 「사강회문서첩」에도 수록되어 있다. 두 판본의 작품은 배열과 어휘, 구절 등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사강회문서첩」본 작품에서는 9장의 각 종장이 끝나는 부분에 표제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것이 모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有名 작가 가운데 위세직(위백규의 조부), 위백규, 이상계는 장흥의 유력한 세거사족이고 박이화는 영암 구림의 세거사족 함양박씨의 일문이다. 이로써 작가의 경우는 대개가 향촌사회의 단일 계층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작가의 작품 생산은 독자의 수용과 반응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⁹⁾ 같은 맥락에서 당대 수용층의 작품에 대한 기대지평을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작품의 실상에 가깝게 접근해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가첩의 수용층을 개괄적으로 추론해 보면, 우선 작품을 선정하고 저본을 바탕으로 필사에 참여한 편집·필사자들을 꼽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정보가 따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특히 『위문가첩』에 수록된 작품들이 지역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장흥가사¹⁰⁾라 할 수 있는 여러 작품 가운데서 위와 같은 작품만이 선별되어 편집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위문가첩』 편집 구성의 특징을 읽어낼 수 있다면 가첩의 수용자 집단의 의식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문중의 자제들과 장흥과 인근 향촌사회의 사족들을 그 수용

9) 권혁준, 「독자반응이론의 발달과 전개」, 『문학이론과 시교육』, 서광학술자료사, 1997.

10) 장흥가사의 작품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문중 가첩 등에 수용돼 장흥에서 유통된 가사를 별도로 하면, 장흥가사는 모두 9편으로 볼 수 있다. (김신중, 「장흥가사의 특성과 의의」, 『고시가연구』 제2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123~124쪽 참조.)

층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알려진 작가들이 모두 장흥 인근 지역의 사족인 점이나 이 책이 오랫동안 위씨 문중에서 전승되어 왔던 점을 생각한다면 장흥위씨와 같은 인근 지역의 향촌 사족의 일원들을 가첩의 수용집단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1950년대에도 위씨 문중의 후손들이 위백규의 작품만을 따로 추려내 필사한 별도의 『가첩』을 문중에 배포한 사례는 당대 독자는 아니지만 사족의 후손들까지로 수용자는 확장된다.

한편 실재 독자와 구별되는 작품 내적 독자¹¹⁾의 존재로도 그 수용층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작가가 작품 내부의 담화상황을 가정하여 설정하는 청자로서 수용집단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리라고 본다. 예를 들면, 『위문가첩』 소재 작품들을 화자의 감정 표출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작품의 내적 작가 자신이거나 향촌사족 내부 구성원들인 가족들(여인들과 연소자로 또 구분될 수 있음)과 혹은 지역내 향민들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문가첩』은 그 생산 및 전승의 과정에서 비교적 응집된 수용 계층이 나타남으로, 작가 및 수용층으로서 향촌사족의 의식과 감정 읽기를 위해서는 개별 작품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작업과 동시에 『위문가첩』의 편집구성에 담긴 의미까지도 함께 읽어내야 의미있는 해석에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11) 문학작품 속에는 실재 작가의 의식이 투영된 가상적 작가가 존재한다. 이 작가에 의해 창조된 서술자(화자)가 이야기를 청자에게 전달하는 담론이 텍스트에 조직되고 그 담론은 다시 텍스트 내부의 가상적 독자에게 읽혀지게 된다. 이들 가상적 작가와 독자를 각각 '내포 작가'와 '내포 독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내포 작가와 내포 독자는 실재 작가 및 실재 독자와 구별되는 작품 내적 작자 및 독자이다.(조윤희, 「고소설의 독자 연구」, 『독서연구』 제17호, 한국독서학회, 2007, 346쪽.)

3. 자의식의 표출 양상

3.1 身分職任에 대한 회의

16세기부터 지방의 향촌사회는 중소 지주인 사족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권력구조는 17세기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이 권력구조의 중앙에 속한 사족들은 부세의 권리와 촌민 교화의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수령과의 관계에서도 일정한 균형을 이루고 향권의 권위를 바탕으로 자율적 자치를 이루어가는 향촌사회의 핵심적 축이었다. 그러나 18세기 향촌 사회의 권력구조는 급격히 변모되어 지방 사족이 권력구조의 중앙에서 점차 멀어지게 된다. 위로는 경화사족의 별 열지배 고착으로 과거를 통한 입신의 길이 점차 어려워지고 아래로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상승해 올라오는 신흥계층의 도전으로 사족으로서의 지위와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대응을 펼친다.¹²⁾

그러나 과거공부와 출사에 대한 집착과 이에 따른 필연적인 좌절감은 새로운 신분정체감을 고민케하고 이들의 감성을 재정립케 하는 주요 동인이 된다고 본다. 사족이 신분을 유지해가는 데는 경제력과 함께 과거를 통한 관료로의 진출이 필수적인데 과거제도의 폐단과 함께 과업에 전념키 위한 경제력의 한계는 이중으로 향촌사족의 위상에 변동을 불러왔다.

서른도 안 되어 一窮이 되어 서로 서책을 내던지고 필묵을 원수로 여긴 즉 몇 십도 안 된 나이에 손을 묶고 유람이나 하는 자가 되어 밭갈고 김매며 채소밭 가꾸고 도랑 추는 일도 할 줄을 모르게 되고 만다. 독서를 그르친 자가 되고 말았으니 書柬도 기록할 바를 모르는 채로 성성백발이 되어 문득 촌수재들의 훈장 노릇을 한다 하나 書空에 지나지 않으니 ‘失筐失蟹’의 낙자에 적중케 되고 만다. 그러나 관을 덮을 때까지 깨닫지를 못하게 되니, 실로 비통한 일이요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¹³⁾

12)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 변동에 관한 연구-18,19세기 향권 담당층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박사논문, 1991.

13) 『존재전서』 하, <諭邑中諸生文>. “自棄爲三十前一窮相拋棄書冊讎視筆墨則數十前

이 글은 위백규가 70세 무렵 옥과현감으로 있으면서 썼던 글인데, 향촌사족의 자제들이 어려서부터 과거공부에만 매달리다 보니 제대로 된 독서도 못하게 되고 과거장 출입에 일희일비하다가 종내는 실패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사족으로서 직임을 다하고 가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출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시대에 향촌 사족은 이미 계층적으로 사회적 능력이 소진된 환경에 처해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와 처지에서 그들의 자의식과 자괴감은 출발한다.¹⁴⁾

이러한 사회경제적 처지에 대한 인식이 기본 바탕이 되어 향촌사족의 자의식이 형성되고 있다는 추론은 위와 같은 작가 자신의 진술이 담긴 글이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의식이 시가 작품의 담화구조 안에서 청자 혹은 독자를 향해 끊임없이 발화된다는 점이다.

『위문가첩』에 게재된 시가 작품 가운데 작품 내적 담화구조에서 우선 화자 자신에 대한 형상과 자의식을 직접 드러내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

하날이 사람낼직 職業이 다잇시되 / 昏愚흔 이人生은 제身命 저몰나셔 /
 妄佞된 어린마암 富貴을 求흐랴고 / 天寒白屋 쑥디門애 窮且益堅 큰쓰스로 /
 달을애 글을익고 빗뒤애 밧슬가니 / 孔子曰 孟子曰애 歲月니 절노가고 / 上
 坪田 下坪田애 人力虛實 쏘이로다 / 어와 虛事로다 世事營爲 虛事로다 / 富
 貴는 아니오고 年少만 가단말가 / 形役애 어든거시 白髮兩鬢 쏘이로다 / 知
 命年이 되온後애 너身命 너알리라 / 碧桃杏花 繁華地애 風情이 절노업고 /
 綠水靑山 김푼곧디 舊夢이 多情흐니 / 富貴는 뒤主人인고 溪山만 너차지라
 <초당곡>

優遊束手者不能耕田耘草治圃聚壅 平生誤讀者不能所志書來星星白髮遽作村秀才師
 長不過書空中失筐失蟹四字 盖棺不悟誠可悲哉誠可哀哉”

- 14) “체면이라는 말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도덕적 준거(도덕성, 양심) 이외에 능력이나 신분-지위가 부끄러움 경험의 준거적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남부끄러움의 원천 중에는 능력과 관계된 것이 많다. 이러한 능력 관련 부끄러움의 준거 원천들의 기저에 있는 심리기제는 자기 자신이 똑똑하지 못한 사람, 변변치 못한 사람, 또는 바보같은 사람이라는 자기 열등 의식이다.” (최상진·김기범,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제14집, 2000, 189쪽.)

一身의 病이 드어 萬事에 興況 업셔 / 竹林 깃픈 곳의 猿鶴을 벗슬 삼마
 / 十年 書窓의 古人詩 쏘이로다 / 一生好入 名山曲을 우연히 기리 을퍼 / 萬
 古 詩豪을 歷歷히 혀여본이 / 八仙 千載後에 니올 이 기 닳게요 / 江山 風月
 이 閑暇흔지 여러 해여이 / 紛紛世事 나도슬여 風月主人 되랴호야 / 名區 仙
 境 半世를 늙어 있다 <금당별곡>

<초당곡>의 화자는 부귀를 구하고자 달아래 글을 읽고 비 뒤에 받을 갈며 온갖 형역을 치러내며 갖은 노력에도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여 50 평생이 허사라고 한탄하고 제 신명이 계산 풍류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서사 부분이다. 외형적으로 은일가사의 지취를 보여주기 위해 세사에 전심전력했지만 허사였다는 깨달음으로 계산 풍류의 명분을 제시하기 위한 도입 단락으로 제시된 서사이지만 도리어 50평생 화자 자신이 힘써온 직업과 직분에 대한 태도가 잘 드러난 부분이다. ‘窮且益堅’하는 큰 뜻으로 부귀를 구하여 병행한 것이 業學과 業農이다. 향촌사족으로서 직분이 이미 업학으로만은 부귀를 구하는 일이 어려운 일임은 자명한 것이다. 그렇다고 업학과 업농의 병행 또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 ‘白髮兩鬢토록 망녕되게 昏愚하다’며 자신의 신분과 職任에 대한 회의와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금당별곡> 서사에 나타난 화자 또한 분분한 세사를 훌훌 털고 강산풍월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는 기행가사 화자의 전형적인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잠시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는 부분에서 짧지만 공교롭게도 선후의 가사 작품 화자들과 유사한 자의식이 드러나 보인다. ‘十年 書窓의 古人詩뿐’이라는 구절에서 사족으로서 직분을 다하여 공부했으되 남은 것은 고인의 시뿐이라는 향촌 선비들의 業學에 대한 좌절감이 드러난다. <금당별곡>은 장흥 앞바다의 금당도와 만화도를 차례로 유람하여 숨가쁜 호흡으로 그려내고 있는 기행가사인데, 선행 연구¹⁵⁾에 의하면 작가는 위백규의 선대인 위세직으로 확인되었다. 위세직은 평생을 처사로

15) 이종출, 「위백규의 가사 <자회가>에 대하여」, 『사대논문집』 제4집, 조선대학교, 1973.

지냈고 문집이 따로 전하지 않고 있다. 제작 시기는 18세기 초엽으로 『위문가첩』의 시가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또 다른 기행가사인 <천풍가>와 대비되는데, 두 작품은 무엇보다 장흥의 향촌사족인 작가가 장흥지역의 산천과 바다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 우선 그 공통점으로 발견된다.

공명의 빅명하고 부귀에 연분업서 / 탁낙흔 문장이 빅옥의 허노흐니 / 튕
효 양절을 원대로 못할망정 / 선풍도골이 세속에 마글소야 / 연흐예 고질되
고 천석의 고향되어 / 삼산의 괴약 못하고 오호수에 못갓신 제 / 천만이십
이 강산을 일골으로 다 보리라 /.....

소박흔 이 너 몸이 글자도 못흐며는 / 요수 요산흔달 인지을 어이 알니 /
빈발이 호빅하고 괴역이 쇠진흐니 / 공땡 안증은 쏜의도 못보니 / 서방 미인
은 소식이 언제 오고 / 석실 운산의 옥담이 천이로다 / 초려의 도라드니 다
시곰 아래보니 / 만 이십 이 청산이 역문안 니런는다 / 청산을 못니저서 다
시 쏜 보자씨니 / 포의로 미양 오니 산수도 붓글업다 <천풍가>

<천풍가>의 작가 노명선 또한 장흥에 세거한 향촌 사족으로 부산면에서 평생을 처사로 살았다. 자신에 대한 형상으로 ‘공명과 부귀’에 인연이 없어 ‘白屋에서 虛老하’고 ‘忠孝양절’을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행가사의 가장 앞선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부귀 공명을 갖추지 못했으니 머나먼 ‘삼산, 오호수’는 못가보고 ‘갓업슨 풍경’으로나마 연하고질과 천석고향의 심병을 치유하고자 한다. <천풍가>의 서두에서 그려진 화자의 자기 형상은 사족으로서의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탁낙흔 문장’과 ‘선풍도골’의 재능과 풍모를 갖춘 자신이 현실에서 높이 쓰이지 못해 사족으로서 신분 직임이 감당해야 할 충과 효의 절의를 실천하고 빛내지 못함은 지역의 산천을 유람하는 흥취마저 방해한다.

선풍도골과 뛰어난 학문을 자부하는 화자와 대조적으로 布衣로 표상되는 대비적인 현실의 처지는 ‘갓업슨 풍경’이자 ‘각별흔 천지로’ 고향의 명산인 이 청산을 못 잊어 찾고자 하는 마음에도 자괴감의 깊은 상처를 곱

씹게 한다. <초당곡>의 화자도 글 읽고 밭 갈며 부귀를 구하는 노력과 갖은 形役이 허사가 되어 白髮兩鬢의 허망함을 대비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그 서사를 삼았다.

이와 같이 서사와 결사에 화자의 신분직임에 대한 회의와 좌절감이라는 자의식을 드러내는 구성은 가사 작품의 전승과 향유의 수용과정에서 작품에 내재된 감정을 구조화¹⁶⁾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가사의 결사 부분은 시조 종장의 구조적 역할처럼 앞서 병렬적으로 나열된 시상을 접속·종결하는 역할¹⁷⁾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될 때 이러한 자의식의 구성이 감정구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3.2 家長으로서 죄책감

다음은 『위문가첩』에 게재된 시가 작품 가운데 작품 내적 담화구조에서 발화가 내적독자(청자)를 향하고 있어 자의식이 확장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본다.

이상계의 <인일가>에서 人日은 정월 초이렛날로 ‘사람날’이라 하여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를 가지는 절일이다. 그리하여 ‘스름날 서로묘와 스름될닐 의논호’자며 오류를 비롯한 가족내의 윤리적 실천 내용을 세밀히 나열하여 결속을 도모한다.

A) 第二애 君臣有義 臣義을 알건마는 功名이 薄命호야 風雲이 期約업서
初夜애 虛老호니 忠義行키 어렵도다 上下坪 公私田을 汲피굴고 자로미여
上父母 下妻子의 飢寒도 힘써면호고 王稅고 愆期물고 官穀도 趨時호면
田里애 사는百姓 그도쫓호 職分이라

....

16) “사회관계와 감정 경험의 범위에 따라 유형화된 애매하고 포착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감정구조라고 부르는데, 감정구조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폭넓고 심도 깊은 의사소통이 그것에 의해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감정적 문화를 의미한다.”(염묘섭, 「감정의 시대: 문화와 집합행동」, 『문화와사회』 제6권, 한국문화사회학회, 2009, 28~29쪽.)

17) 김대행, 『시조유형론』, 이화여대출판부, 1986, 163~167쪽 참조.

B) 艱難이 賤홀소야 身地도 보지말고 居地로 가지마라 穢사람 제된後애
 蠻貊8애도 行홀서라 諸馮이 되썩이되 舜임금이 나시도다 歷山 구진비에
 누역색갓 바슬가니 사람아는 陶唐氏가 ㅎ날님께 薦擧ㅎ야 두쌀로 사외삼아
 萬承位을 傳ㅎ시고 陋巷이 僻陋ㅎ되 顔氏子의 艱難보소 一簞食 못이기여
 외썩북이 자조빈다 堯何人 舜何人고 不改其樂 질거ㅎ니 大聖이 稱贊ㅎ고
 千秋애 欽仰ㅎ다
<인일가>

A)에서는 <초당곡>의 서사와 몇 구절 유사하게 쓰인 것이 보이는데, ‘공명이 박명’한 신세지만 ‘上下坪 公私田을 김피골고 자로미여’ ‘上父母 下妻子의 飢寒도 힘써 면ㅎ고’ 稅穀을 미루지 않고 제때 낼 수 있다면 ‘田 里에 사는 百姓’의 職分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業農에 힘써서 기한으로부터 가족들을 지키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의무이자 이 시대의 새로운 居鄉윤리인 셈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언뜻 화자 자신의 형상이자 자신이 기꺼이 받아들인 직분처럼 그려져 있지만 <인일가> 전체의 교화적 서술 맥락과 내적 담화구조로 살펴보면 ‘田里 百姓’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내포 독자(청자)로서의 자기 계층 즉 향촌 사족층 인사들을 향한 발화인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를 다하면서도 가족들을 飢寒으로부터 지켜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가난한 삶은 일상 속에서 가장을 괴롭히는 치욕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더욱 이에 대한 마음의 단속이 필요했다. B)부분은 업농에 힘써 기한을 면하려 노력하되 피할 수 없는 가난이 있다하더라도 ‘顔氏子의 艱難’과 가난을 ‘不改其樂’하여 즐겨하는, ‘千秋애 欽仰’받는 요순의 덕을 높이고 본으로 삼아 치욕을 넘어서는 방법. ‘艱難이 賤홀소’냐고 ‘身地도 보지말고 居地로 가지마라’는 다짐을 두지만 자신의 몸과 식솔들을 돌아보면 ‘不改其樂’하는 마음가짐으로 풀 수 없는 현실에 괴로운 것이다. <자회가>의 작가인 위백규가 문집에 남긴 다음 제문은 가족들에 대한 가장으로서 이들 심정의 일단을 살필 수 있는 문장이다.

내것은 본디 가난하여 거친 밭 한섬지기에 거뒀들이는 것이 황량했고, 나 또한 계책이 졸하여 힘써 일하지 않으면서도 위로는 사당을 지키고 다음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밖으로는 손님과 친구를 접하라 출입왕환에 대응하라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하기에 천신만고하니 쌀농사 보리농사에도 양식을 이어대지 못하였다. 너는 여자의 몸으로 내게 자녀로 태어나 그 고달픔과 주립 번뇌가 말하지 않아도 가히 알 수 있을지라. 친정집에서의 스물 한 해, 한번도 세끼의 밥을 먹어본 적이 없고 한 젓가락의 생선 고기를 집어본 적이 없이 절구질에 물김기, 불때기, 밥하기, 빨래, 온갖 노고에 밤낮이 없었구나.... 불씨의 윤회지설이 만약 허탄한 것이 아니라면, 원컨대 다시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자식이 되고 너의 아버지로 되어 나서, 이같은 회한의 심정으로 힘다해 받을 갈아 쌀밥에 고기 반찬, 숨 두둑한 옷과 이불로써 내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하고, 너로 하여금 겨울에도 죽을 먹지 않고 여름 날도 세끼를 거르지 않게 하고, 봄이면 쭉뚝을 해 주고 생일날은 생선 굽고 국을 끓여 먹고 더 불어 문란에서 즐거이 놀 수 있기를..., 실로 그럴 수만 있다면 세간의 경사과도 바꾸지 않으리니 이 오직 내 소원이로다.

-위백규, 「祭亡女文」, 『존재전서』 하18)

「祭亡女文」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온갖 집안일의 노고와 굶주림, 번뇌 속에서 37살의 젊은 나이로 죽어간 외동딸의 영전에 위백규가 올린 제문이다. 양식을 제대로 이어대지 못하는 경제사정이 식솔들로 하여금 ‘친정집에서의 스물 한 해, 세끼의 밥을 먹어본 적이 없’이 온갖 집안일에 밤낮이 없도록 하였으니, 불씨의 윤회지설에 기대어서 가장으로서 소박하지만 애뜻한 소망과 정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아비된 도리로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위로는 노부모를 봉양하는 인간다움의 기본을 위해 가장으로서의 소임, 즉 가족을 안돈하게만 할 수 있다면 ‘세간의 경사과도 바꾸지 않’을 소임은 ‘힘다해 받을 가’는겠다는 業農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난한 향촌생활 속에서 가족의 고통을 지켜보아야 하는 가장으로서 죄책감과 고뇌를 다독이고 위로하기에는 <인일가>의 안빈낙도 메시지는 공허해 보인다. 오히려 가족들에 대한 이러한 회한의 심정, 죄책감은 사족으로서 자기 시대의 신분직임이 한계에 봉착하여 새로운 길을 찾

18) 김석희, 앞의 책, 38쪽에서 재인용.

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회적 감정이자 윤리적 감정이 되어 이들 사족 계층으로 확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발화는 대체로 근엄한 교화적 목소리로 나타나게 마련이지만 <자회가>의 다음 대목은 향촌사족 내부에서 또다른 소외계층으로서 노인의 현실을 꿰뚫히게 형상화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이들이 효의 대상인 노인 에 대하여 자발적 공경의 마음을 이끌어내고 있다. 발화의 방향이 교훈의 대상인 내적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향하기보다 노인과 그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신을 포함한 자기계층 내부를 비추고 형상화하는데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A) 집안의 두늘근이 큰짐으로 알아보이

말것치면 성을내고 날것치면 탓을하이/ 님는옷 먹는밥을 판식구로 아든말가
불상홀샤 저늘근이 눈어둡고 귀어두어/ 남의눈의 귀인업고 내몸주체 홀길업다
넙고먹고 쓰울것슬 내손으로 못하거니/ 설폰밥 시근국이 드순마슬 보올넌가 (...)
빈대모기 더온방과 눈서리 친구들에/ 줌못드러 도라노어 죽기만 원홀싸에
며느리 방을보소 죠흔시절 만나도쇠/ 귀동아들 사랑똥을 좌우로 안쳐두고
어이훈 우음소리 그대지 김돈건가/ 이경의 못든짐이 인하야 들히우이
빅발이 마조안자 어디로 가잔말고/ 진느니 한숨이요 쫓느니 눈물이어

B) 저근덧 인간일이 츠려오 늘거간니/ 내부모 진넨닐이 내몸의 당탄말가
에엿썰샤 우리부모 셔리도 지내샷다/ 압팻것 몰나보이 눈어두어 엇디산고
헛식구 눈치밥의 비급과 엇지산고/ 무근소음 여튼의복 치워 엇지산고
눈우희 헌보선은 발슬려 엇지산고/ 썰내셔답 손조홀제 손압퍼 엇지산고 (...)
니재야 뉘웃춘들 다시어전 보올넌가/ 에엿불샤 우리부모 불상이도 지내도쇠
룸름긋치 놀아든너 설운거시 녀시로다/ 궂초출려 제스흔들 이음식 굴을넌가
썸의나 뵈오려면 얼골인달 즈세홀가/ 어와 애돌을셔 다시곰 애돌을셔
물근죽 풋늬믈을 정다이 들여더면/ 에엿분 우리부모 웃고아이 자셔실가
웃는놋빳 춤쓰즈로 혼이퇴만 뵈셔셔도/ 불상흔 우리부모 그다지 원통홀가
이제야 뒤쓴설룸 애돌은들 엇지하리/ 싱각하랴면 7이업고 닐을랴면 혼이업다
사름인테 놋출드나 내아니 붓글려올가 이제야 씨들아도 홀일이 터히업다
<즈회가>

<즈회가>는 위백규의 작품으로 노인의 비참한 생활상과 설움, 자신의 추체함을 통해 부모의 서러운 노경을 참회 속에서 떠올리며 작품의 수용자인 청자들을 향해 진실된 효를 행할 것을 훈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노인은 과거에 자식된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자기 부모의 과거 형상이자 뼈아프게 참회하며 체험하게 된 현실의 자기 형상이면서 동시에 향촌사회 내적으로 만연된 자기계층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A)는 ‘집안의 두늘근이’의 형상과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며느리 방’을 대비시켜 노경의 서러움을 자식된 시선에서 대상화하여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불상홀샤 저늘근이’, ‘빅발이 마조안자 어디로 가잔말고 진느니 한숨이요 쫓느니 눈물이야’ 같은 구절로 대상을 형상화하여 동정심과 연민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데 주력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즈회가>의 다음 구절인 B)에서는 ‘츠려오 늘거’가 ‘내몸’이 직접 노인이 되어 화자 자신의 체험적 형상이 그려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로써 노경의 서러운 형상이 ‘눈치밥의 비곱’프고 ‘무근소음 여툰의복’에 ‘치워’하고, ‘눈우회’ ‘발슬러’, ‘썰내셔답 손압퍼’하는 보다 신체감각적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이에 더해 화자 자신의 참회와 부끄러움, 죄책감을 고백함으로써 내적 독자를 향한 발화가 일방적 교훈의 전달을 넘어 감정의 내면화를 촉진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3.3 향촌사회 지도층으로서 民情의 대변

<합강정선뉴가>는 지방관리들과 중앙에서 파견나온 순상의 호사스런 선유놀이와 이를 뒷받침하느라 온갖 고역과 추림에 시달리는 향민들의 폐해를 대비시켜 향촌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령과 향리들의 폐약무도한 행태를 고발하면서 동시에 향민들의 고통과 원통함을 대변하여 직설적이면서도 풍자적으로 향촌사회의 모순을 그려낸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한 선행 연구¹⁹⁾는 향촌 사족층이 이러한 현실비평가사를

19) 고순희, 「19세기 현실비평가사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0, 125~127쪽. ;
김석희,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 이회문화사, 1995, 331쪽.

매개하거나 수용한 방식은 현실모순의 인식을 향민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한 데에 그 수용의 기반이 있다고 보고 이와 더불어 闕闕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정한 관리들의 탐학이 백성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화자의 목소리는 내내 관찰자의 시선으로 현장 곳곳을 살펴보고 이들의 형상을 그려낸다.

귀경가자 귀경가자 합강정 귀경가자 / 시유구월 염이일은 길일인가 가절인가
관풍찰속 우리 순상 이늘의 선유호너 / 청추성절 즐거우나 창오모운 비감호다
북궐분운 몽외사라 남주민막너 아든가 / 음주유산 조홀시고 추사방극 고렘홀가
식강통도 호을 적의 일월공역 드단 말가 / 착산통도 호을적의 어민가식 호단말
가 (...)

오리밭 주막의 낭자호 저 주육은 / 열읍관인 적기로다 준민고택 안이런가
다담상의 수과련은 향곡우민 초견이라 / 괴이호고 찰난호다 빅금물가 드단 말
가 / 민원이 철천호고 풍악이 동지로다 / 종일 놀임 부족호야 병축야유 호단 말
가 <합강정선뉴가>

‘시유구월 염이일’이 길일인지 가절인지 모르지만 풍속을 감찰해야 할 순상이 선유놀이 飲酒遊山에 빠져 북궐의 온갖 일도 몽외사로 南州民瘼과 秋事方極하는 백성들의 가을철 생업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도리어 선유놀이에 동원되어 백성들은 강물을 막고 산을 뚫어 길을 내야하는 공역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말하는 화자는 향민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할 때인지를 잘 알면서 또한 동시에 ‘북궐분운’의 일들로 시유구월은 관장으로서 선유놀이와 같은 음주유산은 피해야 할 때임을 잘 알고 있는 이다. 화자 자신을 鄉谷愚民이라 칭하며 ‘부자는 可커니와 可憐호다 빈자로다’라는 구절로 보아 화자는 빈자의 고통을 알지만 빈자의 입장에 있지는 않은, 그러면서도 향민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런 존재다. 오리밖의 주막에까지 주육이 넘칠 정도이고 ‘다담상의 수과련’(기녀)에 ‘병축

야유'까지 사치스런 유흥을 비판하면서 민원이 하늘에 사무침을 말하고 있다.

한편 향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 형상을 비교적 소상히 묘사함으로써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향촌사회의 사족으로서 향민의 감정을 대변하고 있다. 다음 구절을 보자.

불상한 저 민전의 조분질 널니거다 / 각읍 관인 동역시의 편박쫓차 무삼 일고
허다한 관인 적기 디소촌의 분정흐니 / 사방부근 십니너여 계건이 멀족커다
부자는 가커니와 가연흐다 빈자로다

(....)

석양이 다저가고 이장 촉반홀제

한주의 우난 소부 발굴으며 흐는 마리 / 방이품 어드양식 한되는 니건마는
찬소는 어이하며 기명은 누기 빌고 / 앞뒷집 보나보니 납일차증 여티로다
촌계도 탕진흐고 호슈렴 흐단말가 / 디호의 양이 남고 소호의 육칠전이라
이 노름 다시 하면 이 빅성이 못살거다/한사람의 호사로서 몇 빅성의 날니넝고
낙토의 싱긴 인생 톱평성디 죠하며 / 안토안업 흐읍써니 할길 업서 유리흐너
가장전지 진미흐야 어너 말로 같넝고

<합강정선뉴가>

민전(民田)의 좁은 길이 넓어질 정도로 허다한 관인들이 출입하여 부근 십리 내에 개와 닭들이 다 없어질 정도. 석양이 지고 里長의 촉반 소리에 젊은 아낙은 밭을 구르고 울며 신세한탄을 한다. 방아품으로 양식은 한 되쯤 얻었건만 반찬은 어찌하고 그릇들은 어찌하겠냐고. 앞뒷집도 보나마나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호마다 돈까지 거두어들인다. 수령의 고상한 선유놀이로 시작된 민폐가 가을 농사철의 생업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함께 나선 관인들의 수발까지 백성들이 모두 떠안으면서 급기야 '이 노름 다시 하면 이 빅성이 못살거다'고 직설적으로 뱉어낸다. '家庄田地'를 '盡賣'하고 유리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주의 우난 소부'와 같은 몇 백성의 '날리'와 고통, 애절한 목소리를 '한사람의 호사'와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수령과 관

리들에 대한 화자의 어조가 조롱에 가까운 풍자적 어조를 취함으로써 수탈당하는 향민과 수탈하는 관료 사이에서 화자가 누구를 대변하고 세상의 무엇을 바로잡을 것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전두풍성 들니기로 치죄니향 혼다커늘/ 간활인가 네겨셔니 음식 드림 쏘이로다
 식록 조흔 우리순상 팔록 조흔 우리순상/ 드르시면 병조판서 나오면 팔도방빅
 공명도 자락호고 부구도 그지업다/ 일단신절 알게 되면 갈역보민 호오리라
 두어라 비은망덕호면 앙급자손 호오리라
 <함강정선뉴가>

조선후기 향촌 사족은 18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사족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향론이 분열되는 가운데 수령의 향촌지배에서 동반자적 지위를 상실하고 향권에서 소외되어 갔다. 이로써 19세기 경에는 수령-이향으로 이어지는 관료적 지배구조가 공고화되면서 민에 대한 수탈 구조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그렇다고 19세기의 향촌사회에서 사족의 역할이 완전히 소진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중앙권력의 한계가 노정되면서 관권에서 소외되어 나갔던 향촌 사족의 관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이러저러한 형태로 잠복해 있었고, 1862년 대대적인 농민봉기의 시기에 그 전면에 드러나기도 하였다.²⁰⁾

4. 『위문가첩』 수용의 윤리적 성격

4.1 새로운 생활규범과 집합감정의 형성

지금까지 『위문가첩』의 시가에서 시적화자를 통해 발화되고 있는 향촌 사족의 자의식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業學을 통해 꿈을 이루지

20)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에서 유교적 전통의 지속과 단절」, 『한국사론』 50, 서울대학교사학과, 2004, 284쪽.

못함으로써 신분직임에 대한 회의와 자괴감을 표출하는 목소리. 이는 화자 자신의 형상을 통해 주로 드러난 반면에 현실적으로 가난한 처지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죄책감을 갖고 참회하는 목소리는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과 같은 내적 독자의 형상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었다. 향민들의 고통과 원통함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관찰자적인 시선으로 향촌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그려냈다. 민생을 파탄내는 타락한 관리들과 향민들의 가련한 형상과 고통을 대비시켜 그 고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공감을 일으키고자 했다.

앞서 파악한 조선후기 향촌사족 시가에 나타난 수치심, 죄책감, 동정심, 대변된 원통함 등은 18~19세기 호남의 장흥이라는 향촌사회에서 『위문가첩』을 제작하고 향유하며 수용해간 향촌사족 내적 관계 속에서 구성된 자의식이자 윤리적 감정이다. 조선후기 향촌 사족이 새롭게 마주하게 된 사회적 상황과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된 이러한 윤리적 감정은 자기 계층 내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규범적·도덕적 행위와 실천을 유발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문가첩』 향유와 수용의 윤리적 의미를 물을 수 있다.

위백규가 중심이 되어 독서와 업농을 병행해간 농촌공동체 운동의 결사체인 社講會 활동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위백규는 42세에 과거를 단념하고 독경병행적 농촌공동체 운동을 펴내기 위하여 사강회라는 결사를 만들고 조직 운영 방침 등 제반 규례를 만들었다. 이러한 활동 내용들이 『사강회문서첩』으로 문중에 독립된 책으로 전해 오다가 『존재전서』에 총21개의 문서가 함께 수록되는데, <社約綱領>, <講契座目>, <講會座目>, <社約跋>, <社中約講契完議>, <講會規>, <講規>, <農規> 등과 연시조 <農歌九章>, <田畔講會口占因爲月課韻>, <和題社中約講會詩軸韻> 등이 다. 사강회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선행 연구²¹⁾에서 <농가구장>의 사회사적 성격을 검토하면서 사약강령, 강회좌목, 강회규, 강규, 농

21) 김석희,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 이회문화사, 1995, 250~259쪽 참조.

규 등의 자료를 독해함으로써 위백규의 연시조 <농가>를 규명한 성과가 있었다. 김석회는 “농가구장은 농부화의 추세 속에 놓인 향촌사족층이 서생의 자리에서 자영농의 자리로 이전해 가는 단계를 전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작품으로, 스스로의 처지와 운명을 ‘영농의 질서’ 속에 내맡기고 그러한 질서로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문중 집단을 규율해 나가하고자 했던 18세기 장흥 방촌 위씨 일문의 ‘영농의 노래’였다”고 결론지었다.

사강회 활동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규명은 선행연구를 참조하고 여기서는 『위문가첩』에서 언급된 향촌사족의 자의식, 즉 그 윤리적 감정과 관련되는 사회적 실천활동으로서 사강회의 성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향촌사회의 변동과 이에 대한 향촌사족층의 가문적·집단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강회 활동은 <社約跋>, <講規>, <農規> 등에 주된 내용이 집약되어 있다.

恒産이 없이 恒心을 지닌다는 것은 보통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바다. 業農하지 않고는 恒産을 지닐 수가 없고, 독서하지 않고서는 恒心을 지닐 수가 없는데, 이 둘을 함께 하기는 진실로 더욱 어려운 바다. 족형 자화씨는 이 둘을 다 극진히 하고자 하니 어찌 迂闊하다 하지 않으리오! 또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더불어 마을 사람들의 습속을 모두 친히 돌아 보고자 하니 실로 오활하도다. 그러나 이미 창수하는 자가 있거니 내 어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말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마침내 그의 말을 적어 두고 동약자로 더불어 힘써나가기로 한다. 승정 150년 청명일에 四樂軒 위백침이 쓰다.²²⁾

恒産을 바탕으로 하여 恒心을 지켜가겠다는 사강회 조직의 기본 취지를 밝히고 있는 발문에서 恒産을 위해 業農해야 하고 독서를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당대의 향촌사족이 처한 사회경

22) 『존재전서』하, <社約跋>.“無恒産而有恒心常人之所難也 非業農而可以有恒産非讀書而能以有恒心兩舉誠難矣哉 族兄子華氏欲兩盡之豈迂哉 又欲與同志者俱親哉見里人之俗誠迂矣哉 雖然既有倡之者吾寧不曰彼何人哉 遂識其說與同約者勸 崇禎百五十年清明日四樂軒魏佰琛識”

제적 처지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 대응 차원의 것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사족의 일원이면서 한 개인으로서 자기 정체성, 즉 신분직임과 가장으로서의 책임 등에 대한 부끄러운 감정들로부터 자존감을 지켜내고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채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치심과 죄책감 같은 윤리적 감정은 사회적 관계에서 생겨난 것이고 이것은 다시 새로운 규범과 윤리, 사회적 행동들을 추동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농에 대한 실천적 규례를 「농규」를 통해 제시하는데 이는 사족의 입장에서 단순히 監農의 역할을 주로 보여주었던 여타 향약류와는 달리 직접 육체적 노동을 감당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어 새롭다. 또 업농의 실천적 규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시조 <농가구장>을 사강회문서첩에 함께 첨부해 됨으로써 「농규」에서 제시한 업농에 매진하는 約員들의 모습과 농사일의 하루 일과가 흥취어린 어조로 노래되고 있다.

도롱이에 흙의 걸고 / 썰 곱은 검은 쇼 물고
고동플 뜻 머기며 / 깃 물긋 느려갈 제
어디서 / 품진 벗님 흙씩 가자 흥느고

...

썸은 듣느대로 듯고 / 벗슨 썰대로 썸다
청풍의 옷깃 열고 / 긴 파람 흘리블 제
어디서 / 길 가는 손님 아는 드시 머무느고

...

취흥느니 늘그니요 웃느니 아희로다
호튼 순비 호린 술을 고개 수겨 권홀 썸에
뉘라셔 흥장고 긴 노래로 츠레춤을 미루느고
<농가>

도롱이에 호미를 매고 검은 소를 물고 나가 김을 맨다. 퇴약별에서 땀을 흘리며 노동하는 화자는 ‘늘그니, 아희’들과 함께 수확의 기쁨에 술잔을 권하고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우기도 한다. 땀흘려 일하여 향산을 마

련하였으니 늙은이와 아희들이 괴로울 리 없다. ‘긴파람’이 절로 나오고 길가는 손님과도 거리낌이 없다. 모두가 기쁜 모습이다. 사강회가 「사약밭」과 「농규」 등에서 지향하는 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가까이 다가선 형상, 즉 업농에 충실함으로써 가문 내 물질 기반으로 하여 향산을 이룩한 자의 형상이 <농가>에 그려져 있는 것이다.

사강회문서첩에 「강규」, 「농규」와 함께 첨부되었던 연시조 <농가>는 『위문가첩』에도 수용되어 편성된다. 사강회의 업농활동과 그 지향을 노래로써 형상화하고 있는 <농가>는 사강회 문서들로부터 독립적으로 떼어져 당대의 장흥지역 가사들과 함께 『가첩』을 구성함으로써 사강회를 넘어서는 수용자들을 만나서 그들 내면의 감정구조에 한 틀을 담당하고 당대의 새로운 생활규범, 새로운 居鄉윤리를 제시하게 된다.

학문하는 것으로 입신과 부귀공명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 세대이며, 맘 편히 학문에만, 과거에만 전념할 수도 없는 경제적 처지의 세대인 향촌사족이 자신의 자존감을 지켜내고 가족들을 기한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생존과 방어의 필연적 선택으로서 사강회라는 결사를 조직하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이 뒤따라야 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향촌사회에 대한 판단과 자기계층의 신분적 위기감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필요하다.

『위문가첩』은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향촌사족의 자의식을 전파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데 위력한 수단이 되었다. 장흥지역에서 『위문가첩』 이후에도 유사한 성격의 가첩들²³⁾이 다수 제작되고 유통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뒷받침한다.

『위문가첩』 시가의 향유·수용과 같은 문화적 차원의 내면화 과정과 더불어 의식적인 사강회 활동 중에도 <田畔講會口占因爲月課韻>, <和題社

23) ①가첩 『자회가』(3편) : <자회가>, <권학가>, <금당별곡> ②『죽촌가첩』(5편) : <퇴계선생안택가>, <인일가>, <초당곡>, <상사곡>, <영종대왕처사가> ③가첩 『초당곡』(7편) : <초당곡>, <인일가>, <권학가>, <귤리가>, <경독가>, <독락가>, <담락가>. (김신중, 「장흥가사의 특성과 의의」, 『고시가연구』 27집, 한국고시가학회, 2011, 124쪽.)

中約講會詩軸韻〉 등의 결과로 정리되어 전하는 시회 활동은 사강회가 지향하는 바의 정당성을 집단내 성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집단적 학습효과를 거둠으로써 자의식의 내면화를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

天公使我不成書 하느님께서 나로 하여 글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에
 吾農使我學耕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밭갈고 김매는 자로 만들었네
 天乎我乎吾不知 하늘이야 나야 어떠한지 나는 잘 모르는데
 知不知間湖有魚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호수엔 물고기가 있네
 유여흙, 〈次族兄韻〉

非求顯世讀詩書 세상 현달을 구하고자 시서를 읽는 것이 아닌데
 豈爲豐家自把鋤 어찌 집을 넉넉하게 하려고 스스로 호미를 잡았겠는가
 但使心頭無雜念 다만 심두에 잡된 생각 없애고자 함이니
 兩忘身世似湖魚 신세를 다 잊음이 저 호수의 물고기 같구나
 위백희, 〈次子華韻〉

위 두 편의 차운시는 위백규의 〈田畔講會口占因爲月課韻〉에 대한 차운이다. 모두 『존재전서』 사강회문서첩으로 부록되어 전하는데 書, 鋤, 魚를 운자로 하여 독서와 농경에 관한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두 가지를 병행해 가는 이들의 태도가 한결같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둘을 비껴가거나 거부하는 이들은 없다. 原韻詩의 운자가 그러하니 비껴갈 수도 없었을 것이다. 독서와 농경을 병행해야 하는 운명적 처지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여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고자 하는 취지가 사강회의 결사취지라 한다면 위백규의 월과운과 이에 대한 차운·화운시 등은 사강회 계원들과 더 나아가 향촌사족들의 세계인식과 자기 인식에 구조화된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위문가첩』 시가에 형상화된 향촌사족의 자의식 또한 이러한 구조화된 프레임과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서 향유층 일반에 점차 내면화되어 집합감정으로 형성되고 이를 극복하고자 제안된 사회적 행위와 실천, 새로운 윤리의식 등으로 인해 더욱더 고착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4.2 居鄉윤리의 재구성

한편 향촌사족의 자의식은 향촌사회 내부의 새로운 시대감각과 지역사회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만의 독특한 居鄉觀 정립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16, 17세기 향촌사회에서 거향을 문제삼는 경우, 그것은 거의 모두가 관과의 마찰이나 정치세력간의 갈등과 관련이 된 것이었다. 정사의 득실을 논하거나 시비를 따지는 것, 관정에 출입하는 것, 부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는 것 등을 금지시킨 것이라든가, 토호로 지목하여 비판할 때 민전의 침탈이나 민에 대한 使役, 私刑 등을 명분으로 내걸었던 것 등이 바로 사족의 거향과 관련된 중심적 문제들이었다. 이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자리 잡게 된 거향관은 바로 국가의 농민지배(수령의 민에 대한 지배)와 사족의 하민지배간의 모순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순의 해결을 위해 사족들은 자신의 양보와 절제를 강요하였고, 이것이 재지사족의 거향관으로 나타났는바, 퇴계와 율곡은 그것에 하나의 형식을 부과하였던 것이라 하겠다.²⁴⁾ 그런데 17세기 말에서 18세기 무렵 이후 중앙권력의 지방통제가 강화되게 될 때, 그 핵심적 내용은 재지사족의 조직적 기반을 파괴하고 그들을 향권에서 소외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향촌재지사족은 향촌사회내의 지위와 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으로는 선양사업들을 통해 문중 단위의 가문 내적인 단결을 공고히 하고 밖으로는 향민들을 교화시켜 사족으로서의 신분 지위를 지속하게 하는 향촌 질서 유지에 힘을 기울였다.

『위문가첩』의 수용과 향유에서는 이러한 향촌사족의 처지를 반영하는 거향윤리 정립의 두 가지 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기존의 보수적 가치 질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가는 차원의 윤리적 실천지향이고 또 하나의 방향은 새로운 차원의 거향윤리 제시라고 할 수 있는 감성의 일단이 보인다는 것이다.

24) 김인걸, 「조선후기 재지사족의 거향관 변화」, 『역사와 현실』 제11집, 한국역사연구회, 1994, 166쪽.

보수적 질서 중에서도 가족윤리의 재확립은 가장으로서 죄책감과 회한이라는 자의식과 맞물려 자기반성과 함께 강조된 것이다. 가족윤리의 재확립을 통한 가정내부의 전통적인 유교적 질서 회복으로 보수화한 경향은 『위문가첩』의 시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膝下에 멀니놀아 寒溫도 못살피고/ ㄴ만흔 저老人은 ㄴ와의지 ㅎ단말가
나우제 갈디업고 洞內에 올리업서/ 큰아큰 빈방안에 ㄴ진더시 은자시니
主人업는 孤客이오 손도아닌 獨夫로다/ 親愛는 아니ㅎ고 三牲으로 奉養ㅎ들
그거시 孝誠이며 그거시 윤정일가/ 家勢디로 奉養ㅎ고 至誠으로 親愛ㅎ소
<인일가>

비록 가난하지만 ‘家勢디로 奉養ㅎ고 至誠으로 親愛ㅎ’하는 것이 효성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윤리. 가난은 서럽고 부끄러운 것이어서 가장으로서 한없이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마땅히 힘써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이 기한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이 해내야 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가난과 가세를 핑계하여 봉양과 친애를 멀리하고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가치를 멀리하는 것은 더더욱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업농을 직임으로 받아들이고 농사짓는 방법을 연구하고 힘써 일하는 즐거움을 자부하면서도 사족으로서 신분적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수적 가치와 윤리를 더욱 굳건히 지켜가야 했다.

한편 역사와 사적에 대한 교양도 사족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지식이다. 그래서 농경과 함께 독서가 병행되어야 함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런데 업학에 대한 회의가 만연해지고 가족부양을 위한 업농이 강조되면서 독서에 대한 연소자들의 태도가 급격히 태만해지는 풍조가 만연하였던 모양이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음 시가에 담겨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사한뉴 아희들아 이녁말삼 들어스라
불학무식 비금수을 너의 일정 모로는다

황천황제 사람늘제 각수기직 흐엿씨늘
 무삼일로 너희들은 유희도일 무렵흐야
 본연심성 방실흐고 자포자기 즐기느가
 박혁음주 조아흐고 호협기을 자양흐야
 악의악식 스러흐며 니욕여식 탐을흐면
 금수도기 불원흐고 사람도기 어려오니 (...)
 <권학가>

太古라 天皇氏은 木德으로 卽位흐야
 한 兄弟 열두 사람 오리도 살엇도다
 地黃氏 人皇氏은 그밋쫓차 나단말가
 有巢氏 남글벼혀 지위업시 지은집은
 문жат도 허술흐고 춘여쫓도 두세업다
 燧人氏 불을불려 무슨밥을 지어든고
 伏羲氏 風姓元은 아리도리 비암жат터
 말등거리 구버보고 八卦을 쓰어너며 (...)
 <만고가>

<권학가>는 無事閒遊하는 연소자들에게 不學無識함은 금수와 같으니 본연심성을 잊어버리고 술과 여색만을 탐하게 되면 사람 되기 더욱 어렵다고 가르치고 있다. 출사의 꿈이 좌절되고 사족들 내부에 신분직임에 대한 회의가 널리 퍼져있는 향촌에서 ‘아희들’은 자연 학문을 기피하고 ‘利慾만 專主흐고 大人의 하는 일을 妄靈도이 是非’한다. 이에 ‘無識은 聖門의 罪人’이며 ‘文筆’을 꼭 해야 함을 강조한다. <만고가>의 작가는 장흥에 이웃한 지역인 영암의 향촌사족 함양박씨 박이화이다. 그의 문집인 『龜溪集』에 부록되어 있는 「朗湖新詞」에 순한글로 필사된 <만고가>가 실려 있는데, 『위문가첩』 본이 『낭호신사』 본을 저본으로 하여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²⁵⁾ 중국의 역대 인물에 얽힌 사적들을 가사 형식에 엮어 엮은 역사 교양물의 성격을 띠고 있다. 향촌내 문중 자제들의 학문 경시 풍조를 비

25) 김석희,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 이회문화사, 1995, 316~317쪽 참조.

관하며 독서와 학업의 당위를 강조한 교훈가사가 <권학가>라면, <만고가>는 업학의 길에 들어선 연소자들을 위한 역사교양가사인 것이다.

이와 같이 『위문가첩』의 시가는 가족윤리의 재확립이라는 윤리적 성격과 함께 사족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 교양과 학문하는 태도를 강조하여 신분윤리를 재확립하는 윤리적 성격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지향이 보수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다음의 윤리적 성격은 조선후기 향촌사족의 독자적 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새로운 차원의 거향윤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자기계층과 향촌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된다.

連回 顧眄호야 곳곳지 指點홀 제 / 祥雲 一片이 海天의 검어 이서
 溫藉흔 鶴의 소리 十里 들니거늘 / 蘭棹을 썰리 저어 느드시 들어가니
 芙蓉花 휘운 거동 半共의 소사는너 / 울저 듯던 그 술의 잇싸히서 나실세라
 平沙의 닳슬 주고 彩霞을 헛쳐 보니 / 밋 앞에 물 우회 그 스이 千尺이라
 氣象이 滿千이라 巴陵이 이갓든가 / 대 굴은 그 일흠이 이제 보니 果然하다
 烟霞와 흠괴 느려 石路로 올라가니 / 瓊花 遙草는 곳곳의 겁씩 잇고,
 玉殿 金莖은 골골이 널려 잇다 / 漢帝 金莖 언의 세예 잇싸히 움계시며,
 渦皇補天 어이호야 海天에 썰어진고 / 죠코도 돌근 氣象 그즈도 그즐시고
 石作連花 雲作臺는 이런디를 이음이러 / 峨嵋山 赤壁江의 秋景春賞 이러흔겨
 赤松子 安期生은 羽化登仙 예와 흥가 (.....)

<금당별곡>

<금당별곡>은 작자가 배를 타고 금당도와 근처의 만화도를 유람하는 2박3일의 여정으로 되어 있다.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들어간 금당도는 바다에서부터 학이 맞아주고 부용화를 피운 산봉우리가 물 위에 ‘천척’으로 솟아 있다. 닳을 내리고 안개 낀 돌길을 오르니 온갖 꽃과 풀들이 피어 있고, 골골에는 옥같이 깎아지른 절벽이 널려 있다. 눈앞에 펼쳐지는 절경을 흥취있게 그리면서도 ‘석작연화 운작대는 이런 디를’ 말한대며 중국의 이름난 승경인 巴陵, 漢帝 金莖, 峨嵋山 赤壁江에 비겨 향촌 명승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 보인다.

천풍산 팔만봉은 각별한 천지로다 / 갓 업슨 풍경을 디기만 니로리라
 천관은 고찰이라 사덕이 괴이하다 / 덩석봉 나린 활기 가다가 도로 도라
 용비 봉무하야 불국을 밧근 후에 / 통영화상 어느 석에 잇 터홀 아라보고
 쇠막디 썩진 잣취 어제란 닷 그제란 닷 (...)
 청녀장 가는 디로 구정암 드러가니/ 첩단의 자던 구름 석정을 더퍼 있다 (...)
 단이을 빅기 건너 수층을 올라가니 / 원통 빈 암자의 운학이 직키였다
 옥정의 연만하고 가난 길로 도라가니/영축은 터만 잇고 수목이 자자 잇다
 선궁도 이러하니 인세을 가지로다 (...)
 연화 즈즌 질로 반야디 내려오니/ 천티산 굽편 중이 어제 온가 괴제 온가
 (...) 당공의 긴 바람리 양액의 기시 되며/ 탈건 노발하고 창포봉 올라가니
 (...) 불영대 저문 정자 취미간의 썩러지다/ 암화도 작작하고 송계도 썩썩하다
 (...) 팔십구 암자을 못본 디 반이 늙다/ 흥진 비너 회포도 하고 만타
 <천풍가>

천관산 ‘팔만봉은 각별한 천지’라는 뚜렷한 인식으로 기행을 시작하는 <천풍가>는 천관산의 모든 봉우리, 모든 골짜기를 답사하듯 촘촘한 여정이 구절마다 배치된다. 제작시기가 앞선 <금당별곡>이 관습적으로 중국의 명승에 비겨서 뛰어난 경치를 드러내 보이려고 한데 비해서 <천풍가>는 천관산 곳곳의 뛰어난 경치를 최대한 열거하고 감상함으로 2박3일의 여정 곳곳에서 만난 장소에 대해서 경탄하고 ‘이 청산이 호남의 제일’이라 자부한다.

위의 <금당별곡>과 <천풍가>는 장흥지역의 명승인 금당도와 천관산을 유람했던 여정과 자신의 눈으로 관찰하고 느낀 바를 세밀하게 그려낸 기행가사이다. 그 여정의 세밀함은 마치 눈앞에 그 대상을 펼쳐놓고 세밀하게 짚어가며 독자들을 안내하는 듯한 생생한 공간 형상화가 두드러진다. 또한 두 작품은 장흥 지역의 명승을 직접 답사하여 지리적 현장과 이에 대한 작가의 감흥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이는 향토지리에 대한 관심과 향토의 명승에 대한 자부심의 표출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구절에서만큼은 궁벽한 향촌의 寒土라는 자괴감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문가첩』에 수록된 이러한 기행가사의 유통과 향유를

통해서 향촌사족의 새로운 윤리 의식, 거향관으로서 향토애와 향토 지리에 대한 교양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위문가첩』의 편집 구성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향촌사족의 새로운 윤리의식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장흥가사²⁶⁾와 『위문가첩』 수록 목록을 대비해보면 최초의 장흥가사이면서 기행가사인 백광홍(1522~1556)의 <관서별곡>이 『위문가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²⁷⁾ <관서별곡>이 가첩의 편성에서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가? <관서별곡>이 『위문가첩』의 작품들과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다고는 하나, 장흥 태생이며 사후에도 장흥 안양면 기양사 祠宇에 배향된 이름난 사대부였던 백광홍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한 고장의 선대 문인을 몰랐을 리도 없다. 그럼에도 가첩의 편성에 이 작품이 빠졌다는 것은 편집자들 나름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관서별곡>의 세계가 이들의 주 관심 대상 지역인 자신들의 향촌, 즉 장흥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만고가>의 작가 박이화의 <낭호신사>가 수록되지 않은 까닭도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낭호신사>는 장흥의 이웃 고을인 영암 구림의 향촌사족 박이화의 기행가사다. 낭호란 영암의 옛 지명인데, 월출산 천황봉 주지봉의 ‘奇絶’할 산세에 대한 묘사를 시작으로 영암 지역 구석구석 아름다운 경관과 유래를 읊고 있어 기행가사로서 영암 가사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동시대의 향촌사족인 박이화의 <낭호신사>도 <만고가>와 함께 향촌에서 충분히 유통되었으

26) 김신중, 「장흥가사의 특성과 의의」, 『고시가연구』 제2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123~124쪽. 작자를 알 수 없는 작품의 경우 작품의 성격을 판단하여 장흥가사와 장흥의 유통 가사로 분류하여 장흥의 가사를 모두 9편으로 확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위문가첩』에 없는 장흥가사는 <관서별곡>과 <임계탄>, <장한가>이고 반대로 『위문가첩』에 있지만 장흥의 유통 가사로 본 작품은 <합강정선유가>, <만고가>다.

27) 작자미상의 <임계탄>과 이중전의 <장한가>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장한가>는 1876년작으로 『위문가첩』의 제작 시기보다 훨씬 후대의 작품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임계탄>의 경우는 알 수 없다. 다만 여기서는 기행과 유람이라는 차원에서 살폈기 때문에 <관서별곡>만을 대상으로 논의했다. <장한가>와 <임계탄>의 가첩 미수룩에 대한 해명은 다음 과제로 남긴다.

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가첩의 주 수용층이 장흥의 위씨 문중 성원 들임을 상기하면 장흥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편집진이 이를 배제함으로써 가첩의 성격과 효용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삶의 터전인 향촌사회에 대한 지리적 관심과 교양, 이를 통한 향토애의 구현과 자부심 고취라는 향촌사족의 새로운 윤리 의식이 위와 같은 기행가사의 선택과 『위문가첩』의 편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조선후기 향촌사족의 시가에 나타난 자의식과 그것의 윤리적·사회적 감정으로서의 역할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장흥 위씨 문중에서 세전되어 온 『위문가첩』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위문가첩』 시가에 나타난 향촌사족의 자의식은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되었다. 신분직임에 대한 회의와 좌절감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화자 자신의 형상을 통해 주로 드러난 반면에 가난한 처지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참회하는 목소리는 화자의 가족과 같은 내적 독자의 형상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다. 또 향민들의 고통과 원통함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관찰자적인 시선으로 향촌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그려냈다.

향촌사족 시가에 나타난 이러한 자의식에 대한 방어기제로 새로운 생활규범과 윤리의식을 담은 사회적 실천행위가 추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강회라는 문중조직을 만들고 독서와 농경을 병행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회적 실천행위와 새로운 생활규범이 제시되고 『위문가첩』의 노래가 이를 지원함으로써 조선후기 향촌사족들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그들만의 독자적인 집합감정이 구조화된 감정으로 점차 내면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위문가첩』 시가들은 가족윤리의 재확립을 촉구하고 교양과 독서

를 강조함으로써 사족으로서의 신분윤리 재확립을 역설하는 윤리적 성격을 보여준다. 또 한편 향촌사회에 대한 지리적 관심과 향토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새로운 거향윤리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문학작품에 담겨진 동시대 작가와 수용층의 응축된 집합감정이 어떤 배경과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이들의 사회적 실천행위와 생활규범의 변화에 이러한 집합감정이 어떻게 관계하는지 그 일단이나마 해명하였다고 본다.

참고 문헌

『存齋全書』, 경인문화사, 1974.

고순희, 「19세기 현실비판가사 연구」, 이화여대박사논문, 1990, 125~127.

권혁준, 「독자반응이론의 발달과 전개」, 『문학이론과 시교육』, 서광학술자료사, 1997.

김대행, 『시조유형론』, 이화여대출판부, 1986, 163~167쪽.

김석희,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 이회문화사, 1995, 250~259쪽, 316~317쪽, 331쪽.

김신중, 「장흥가사의 특성과 의의」, 『고시가연구』 제27집, 한국고시가학회, 2011, 123~124쪽.

-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 변동에 관한 연구-18,19세기 향권 담당층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박사논문, 1991.
- , 「조선후기 재지사족의 거향관 변화」, 『역사와 현실』제11집, 한국역사연구회, 1994, 166쪽.
- , 「조선후기 향촌사회에서 유교적 전통의 지속과 단절」, 『한국사론』 50, 서울대국사학과, 2004, 284쪽.
- 박수진, 「장흥지역 가사문학의 문화지리학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염묘섭, 「감정의 시대: 문화와 집합행동」, 『문화와사회』제6권, 한국문화사회학회, 2009, 28~29쪽.
- 이종출, 「지지재 이상계의 가사고」, 『국어국문학』 제33호, 국어국문학회, 1966.
- , 「위백규의 가사 <자회가>에 대하여」, 『사대논문집』 제4집, 조선대학교, 1973.
- 전신현·이성식, 「규범행위에 있어서 죄책감과 수치심의 역할」, 『사회와 문화』, 1995. 175~176쪽.
- 조운형, 「고소설의 독자 연구」, 『독서연구』 제17호, 한국독서학회, 2007, 346쪽.
- 최상진·김기범,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4집, 2000, 189쪽.
- 잭 바바렛, 박형신 옮김, 『감정과 사회학』, 이학사, 2009, 14~16쪽.

<Abstract>

Self-consciousness and Its Ethical Character in
Hyangchonsajok Siga of the Late Joseon
- Focused on 『Wimungacheop(魏門歌帖)』

Kuk, Yun-ju

The aim was to try to infer a role of ethical and social emotion based on the existing discussion of grasping a factor of a change in Hyangchonsajok(鄉村士族) and Geohyangyunri(居鄉倫理) of the late Joseon as a change in social-economic position and social standing.

Examining social relations and background in enjoyment of 『Wimungacheop(魏門歌帖)』, which had been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by Jangheung Wi's Munjung(門中:clan), the expression of ethical emotion like a sense of shame and the expansion in sympathy can be confirmed to contribute consistently to a change in Geohyangyunri(居鄉倫理). Expression and sympathy in the status-based self-consciousness as Sajok(士族) were feelings that are shared widely by literary people in the society of county villages at that time. Responsibility as a family head who needs to proceed with operating household, frustration according to it, and guilt for family members were also feelings in ethical character, which are continuously expressed and sympathized.

This ethical emotion can be said to have been formed as the more solidified collective emotion of Hyangchonsajok by driving social practical behavior of containing new life norm and ethics.

Key-words : Hyangchonsajok(鄉村士族), Wimungacheop(魏門歌帖),
Self-consciousness, Ethical emotion, Geohyangyunri(居鄉倫理),
Collective consciousness